

증권사 '공매도 금지' 수혜자 될까 개미투자 늘어 수수료 수익 기대

금투협, 금지첫날 예탁금 3조 증가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증가 예상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수혜 클 듯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 금지로 거래대금 증가가 예상되면서 증권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리테일 강자로 꼽히는 키움증권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첫날이었던 6일 투자자 예탁금이 전 거래일 대비 3조 가량 증가한 47조429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시장이 약세를 지속해 왔던 만큼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저점 구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3일에는 44조682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연저점이었던 43조6927억원에 근접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시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앞서 2020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가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씩 반등했고, 이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2021년 4월 말까지도 78% 수준의

회복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자극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졌다. 키움증권은 주식시장의 약재에도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7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7%나 상승했다. 특히 테마주 열풍으로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얻게 된 수수료 수익이 호실적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키움증권의 3분기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동기(457억원) 대비 35.7% 급증한 1338억원을 기록했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거래대금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영풍제지 사태로 발생한 미수금 손실액은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6일 풍제지 관련 미수금 손실액이 4333억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래대금 증가의 수혜를 입게 된다면 손실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역시 거래대금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이 깔렸고, 오히려 개미들을 죽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포폴리즘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비상대책 수립·운영	프로그램 통제
1. 성능관리 임계치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1. 비상훈련 실효성 강화 및 훈련 결과 환류체계	1. 제3자 검증·통제기능 강화
2. 대형이벤트 유입량 분석 및 예측	2. 재해복구센터 전산지원 등 인프라 확충	2. 테스트 역량강화 (전담화, 자동화)
3. 성능관리 비상대책 마련	3. 전산센터 화재예방·대비	3. IT운영 안전성을 위한 배포전략
4. 조직·내규 등 성능관리 기반 확보	4. 핵심업무 선정 절차 및 관련부서별 역할 명확화	4. 프로그램통제 관리 및 점검 강화
5. 성능관리 내부보고체계 수립	5.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점검 및 관련시스템 구축	5. 프로그램통제 절차 내부교육 강화

증권사, 청약때 MTS·HTS '먹통' 막는다

(모바일·홈 트레이딩시스템)

『금융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 4단계 구분 경계·심각 징후엔 즉각 설비 증설해야

앞으로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청약 등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고객수요를 예측해 전산설비 등을 사전에 늘려놔야 한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소위 '먹통'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산시스템 성능을 초과하는 이용자 집중으로 MTS·HTS 등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성능을 관리해야 한다.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정상→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경계 및 심각한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 IPO 등 대형이벤트는 기획 단계부터 고객수요를 예측하고, 시스템 처리능력을 검증하도록 해 사용량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

실제 한 증권사는 지난 6월 전산시스템이 경계 수준의 사용량에 도달했음에도 조치 없이 운영하다 결국 7월에

MTS가 중단된 바 있다.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IT 부문의 비상대책도 수립해 운용해야 한다.

주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에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나 서버, 통신망 등 재해복구센터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하게 복구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훈련의 범위도 확대했다.

또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3자 검증과 통제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개발·변경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와 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종 점검했다.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7개 금융협회·중앙회별 자체심의, 보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등 금융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준수 상태가 규정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에코프로 목표주가 42만원 '투자의견 매도'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
"현재 85만원 선... 변동성 커져
사실상 기업가치 '공백 상태'"

에코프로의 적정주가가 현재주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8일 "금리 상승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을 반영해 에코프로의 목표주가를 42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며 투자의견은 매도를 유지했다.

에코프로 주가는 작년 말 10만원대에서 지난 7월 26일 153만90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공매도가 금지된 다음날 85만원선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BM의 장기 내재 가치 32조9000억원 가운데 지주사의 향유 가치는 7조4000억원이며, 머티리얼즈의 적정 가치 2조9000억원 중 지주사



/유도이미지

향유 가치는 8000억원"이라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적정 가치 2조원에 기타 자회사들의 가치를 더한 지주사 에코프로의 가치를 현재 할인하면 10조9000억원이 도출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가총액 22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현재 주가는 사실상 기업가치(밸류에이션) 공백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

기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아 눈금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가리킨다"며 "열기가 가라앉은 후 저울이 가리킬 지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연결 영업이익 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

김 연구원은 "리튬 및 리사이클링 자회사 실적 상에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지주사 연결 이익에서 상장 자회사 이익 제외한 영업이익이 76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 비상장 법인 실적은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양극재 수요 감소에 메탈 가격 하락으로 3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사전가입 실시

KB증권, 내달 18일 정식 서비스

KB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12월 18일 새롭게 오픈하는 해외주식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 사전 가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는 기존에 KB증권이 제공하던 '글로벌원마켓'

이 12월 18일 서비스를 종료하며 새롭게 선보이는 후속 서비스로, 8일부터 사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글로벌원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사전 가입 신청을 통해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원마켓 플러스'는 기존 '글로벌원마켓'을 더욱 발전시켜 고객들에게 향상된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

해 12월 18일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화만 매수증거금으로 사용 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사용이 불가했으나, '글로벌원마켓 플러스'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플러스(+)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외화까지 전부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실시간 환전이 돼 이외 야간 시간에는 익일 환율 정산으로 익일 재정산되는 환율 변동의 리스크가 존재했던 부분을 개선했다.

/신하은 기자

셀트리온, 5000억 규모 자사주 추가매입

주주가치 제고 일환 올 총 9500억

합병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그룹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7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취득한 자사주 규모만 9500억원을 넘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달 23일, 셀트리온 총 242만 6161주(3651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총 244만주(1644억원)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이래 영업일 기준 11일 만에 총 5295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다.

양사는 올해만 셀트리온 총 442만 8402주(약 6694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총 434만 5000주(약 2827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해 합계 약 9521억원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향후에도 양사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 주식 취득을 알리며 셀트리온그룹의 성공적인 합병에 힘을 보탤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장내매수를 통해 셀트리온 주식을 취득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취득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의 첫 단계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우선 흡수 합병하고, 다음 단계로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추진해 바이오와 케미컬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연이은 자사주-계열사주 매입이 합병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주가치 극대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사주-계열사주 매입은 성공적인 합병과 미래 성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며 "매입한 주식은 M&A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 셀트리온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